

양돈-삼출성 표피염

옵티팜 솔루션
-이현정-

양돈-삼출성 표피염

1. 정의

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hyicus*)에 의한 어린돼지의 질병으로 급성 전신성 지루성 피부염을 특징으로 하며, 그리스 돼지병(Greasy pig disease)이라고도 불린다.

2. 원인

3 - 35일령의 포유자돈의 제대, 발, 다리 등의 찰과상 또는 피부 열상을 통해 포도상구균 (*Staphylococcus hyicus*)이 감염되어 발생한다. 감염된 돼지의 피부표면에 끈끈한 점액 양 삼출물이 분비되어 마치 구리스와 같은 기름을 발라 놓은 것 처럼 보여 일명 "그리스 돼지병(Greasy pig disease)" 라고도 부른다. 발병율은 10-90 % 정도이고, 폐사율은 20-90 %로 돈방단위 또는 복단위로 발병하며 심한 탈수로 인해 폐사하게 되는데 주로 어린 연령의 돼지일수록 폐사율이 높고 회복율도 낮다.

3. 증상 및 진단

1) 심급성형은 2-3일령의 매우 어린 돼지에 발생한다. 초기에는 빨간 발진이 코와 얼굴 주위에 발생하고 전신으로 퍼져나간다. 그 후 피지선의 분비물과 혈장, 땀 등이 분비되어 습윤하고 끈끈한 삼출물이 피부 전체를 덮는다(그림 1). 눈주위, 주둥이 및 귀 등이 비교적 심하고, 때로는 피부 병변부가 벗겨져 붉은 살이 노출되기도 한다. 소양증과 함께 피부를 만지면 매우 아파하고 식욕부진, 탈수, 원기소실로 24-48 시간 경과 후 죽게된다.

